

스페인 명문 축구팀 '현대차 로고' 유니폼 입는다

현대차, 유럽 축구 마케팅 강화
2021년까지 AT 마드리드 후원

현대자동차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축구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글로벌 자동차 파트너'로 2021년까지 후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안다메트로폴리타노에서 레오폴도 사르투스테기 현대차 스페인법인 총괄 디렉터, 엔리케 세레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1903년 창단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 리가 10회 우승, 코파 델 레이 10회 우승, UEFA유로파리그 3회 우승, UEFA 컵위너스컵 1회 우승, UEFA 슈퍼컵 2회 우승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다.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와



레오폴도 사르투스테기 현대차 스페인법인 총괄 디렉터(왼쪽)와 엔리케 세레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회장이 12일(현지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안다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에서 후원 계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함께 스페인 3대 명문축구팀으로 꼽힌다.

현대차는 후원 계약을 통해 2021년까지 선수단 유니폼 소매, 경기장 내 광고판 등에 현

대차 로고를 홍보한다. 아울러 홈구장에 차량을 전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ING생명, 오렌지희망하우스 캠페인
ING생명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2018 오렌지희망하우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렌지희망하우스는 ING생명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노후화된 아동시설을 개선해 소외계층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ING생명

KAI 국내 최초 항공정비 전문업체 출범

국내 최초 항공정비(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가 정식 출범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4일 KAI 에비에이션 센터에서 항공정비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 발기인 총회를 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4일 KAI 에비에이션 센터에서 항공정비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 발기인 총회를 하고 회사 정관 승인, 이사·감사 선임, 본점 설치 장소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AEMS 대표이사에는 KAI 조연기 MRO법인설립위원장이 선임됐다. KAEMS의 본점은 경남 사천시에 두며 KAI 2사업장을 기반으로 향후 용당부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KAEMS는 오는 7월 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조직 인증을 받아 연말부터 여객기 정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채용한 인력을 다음 달부터 항공정비능력 인증을 받기 위한 해외 연수에 보낼 계획이며 현재 추가 인력 채용도 진행 중이다. /양성운 기자

넷마블문화재단 장애인권교육 참여기관 모집

넷마블문화재단은 '어깨동무문고'의 동화책을 활용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할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된 '어깨동무문고'는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동화책을 매개로 한 장애인권교육을 펼치는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올해부터 '어깨동무문고'를 보다 확대 진행하기 위해 동화책을 매

개로 한 장애인권교육에 관심이 많은 전국 공공도서관 등의 기관 신청을 받아 '어깨동무문고'를 활용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관은 장애우권익연구소 홈페이지 내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넷마블문화재단 이나영 사무국장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어깨동무문고'를 보다 확대해 나가기 위해 장애인권교육용 동화책을



장애인권교육용 동화책 '어깨동무문고'를 활용한 교육 현장. /넷마블문화재단

시중 판매하는 것은 물론 지원대상 및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운세 6월 15일 (음 5월 2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부드러움보다 강하게 나가야 하는 하루. 60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72년생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투자하라. 84년생 작은 차이가 결과를 좌우하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 49년생 효도하는 자녀보다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낫다. 61년생 유행이나 새로운 것에도 관심을 가지자. 73년생 두루 베풀면 순조롭게 해결된다. 85년생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송사를 조심해야 한다.
- 호랑이** 50년생 흐지부지될 수니 확실한 문서로 남겨라. 62년생 비정상적인 이상의 만남은 말썽을 부른다. 74년생 남쪽에서 온 사람과의 거래는 성공. 86년생 내 생각만 주장하면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일도 망친다.
- 토끼** 51년생 진퇴양난인 경우라도 조심하면 길이 열린다. 63년생 사업이든 직장 이든 성실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75년생 필요 없는 사람만 잔뜩 모여 시끄럽다. 87년생 분수에 맞게 진행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음.
- 원숭이** 52년생 머리가 좀 아프나 오후에 해결된다. 64년생 오늘의 거래는 시간만 가고 좋은 성과가 없다. 76년생 동쪽으로 가면 행운이 따르고 소득도 늘어난다. 88년생 모든 일처리는 질서 있는 문서로 하는 게 좋다.
- 뱀** 53년생 여행이나 등산을 가기에 건강이 문제다. 65년생 아직은 시기가 아니니 힘을 길러야 할 때. 77년생 바쁘다고 가정을 등한시하면 불화가 생긴다. 89년생 유혹이 따르는 하루이니 조심하지 않으면 망신 수.

- 말** 54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내 보는 것도 좋다. 66년생 의견대립이 생기나 발전적으로 나간다. 78년생 기회가 왔을 때 잡을 능력을 미리 키워 두는 것이 좋다. 90년생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 양** 55년생 맑은 하늘이 외출을 부른다. 67년생 지금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오로지 노력뿐이다. 79년생 일에 싫증 내지 말고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91년생 잘 된다고 과신하지 말고 부모의 조언을 들어라.
- 원숭이** 56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를 가져라. 68년생 문서 운이 강하니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80년생 새 인연이 새로운 거래를 만든다. 92년생 봉사할 때는 마음을 크게 먹어야 길 선타다.
- 닭** 57년생 신규 사업이나 투자는 자제하라. 69년생 구설수를 주의하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날. 81년생 머리가 맑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93년생 한발 물러서는 것도 나아가는 방법이다.
- 개** 58년생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70년생 물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니 노를 열심히 저어야 성공. 82년생 크게 봐야 새로운 것이 보인다. 94년생 배가 아프니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자중하는 하루.
- 돼지** 59년생 막혔던 구멍이 뽕 뚫리는 날. 71년생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83년생 금전 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자제해야. 95년생 길 나서는데 산들바람이 불고 시원하니 좋구나.

김상회의 4季

작은 노력이 운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타거나 광장을 다니다 보면 가끔씩 누군가와 살짝 부딪치는 일이 생긴다. 그런 일이 생기면 "죄송합니다" 하며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피치못하게 생기는 일이지만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하는 것이다. 매일 먹는 밥이지만 음식점을 나오면서 "잘 먹었습니다"하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다. 한 끼를 잘 먹었으니 그 자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 의례적이어도 들어보면 정말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인사를 한다. 반면에 거리를 지나 치다 남과 부딪치면 모른 척 하거나 짜증을 낸다. 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듯 화를 낸다. 음식점에서도 '내 돈 내고 먹었는데 인사를 왜 해' 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쓰며 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표현 방식이 서로 다른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운세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된다. 일단 좋은 말은 주변사람들이 듣기에 좋다. 그런데 주변사람들만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본인에게도 좋은 운을 불러들인다. 따뜻한 마음을 지니면 그 사람에게 좋은 기운이 몸을 타고 흐른다. 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싸주니 기와 혈이 원활하게 몸을 움직이게 해준다. 운세는 주어지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물론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힘들다. 인생을 좌우하는 큰 사건들의 운세는 주어진다 고 보여 맞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주를 보고 미리 대비를 한다. 일상의 작은 운세나 운세의 흐름은 조금 다르다. 일정 부분은 자기의 노력에 따라 운세의 흐름 자체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가장 쉬운 노력이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다. 별 것 아닌 것 같은 작은 행동이지만 좋은 운세를 만들어 내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좋은 운세가 들어오면 그 운세는 한쪽으로의 방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일단 형성된 좋은 운세가 쉽게 바뀌지 않고 쪽 진행되는 것이다. 좋은 말과 따뜻한 마음이 본인의 몸을 물론이고 운세도 좋아지게 한다는 말에 코웃음 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 효과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주 화를 내고 거친 말도 쉽게 내뱉는다. 그 결과로 어둡고 부정적인 기운에 둘러싸인다. 그런 부정적 기운은 좋은 운세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 나를 둘러싼 기운을 좋게 만드는 건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운세를 좋게 만들어줘 일상생활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작은 노력에서부터 출발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2	8	9			3
		2	5		1	6		
	3	9	8		5	2	6	
	4			9				8
	6	5	4		3	1	7	
		3	1		7	8		
	1		6	5	2		9	

			6	3	9	4	7	
	8	1		2		4	5	
	3		9		5		2	
	2	9		1		8	3	
	6		2		3		4	
	7	5		4		3	8	
		3	8	7	1	5		

스도쿠 정답

2	1	7	8	5	6	9	4	3
4	6	5	2	3	9	8	1	7
9	5	8	4	7	1	5	2	6
6	4	1	5	2	7	3	9	8
5	8	5	9	6	4	1	7	2
7	9	2	1	8	5	6	3	4
8	7	9	1	4	5	2	6	3
1	5	4	6	8	7	3	9	5
3	2	6	7	9	5	1	8	4
7	4	9	6	5	2	1	8	3
2	6	5	1	4	8	7	9	5
1	8	5	2	7	9	5	4	6
5	7	6	5	8	2	4	9	1
9	5	8	4	1	7	6	2	3
4	2	1	5	9	6	8	3	7
6	5	7	9	2	4	1	8	3
8	1	4	7	6	5	9	2	3
5	9	2	8	5	1	7	6	4

문제 제공= 보누스